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문화변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15:00~17:20

장소 | 서울대 시흥캠퍼스 통일평화연구원 9층 대회의실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문화변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목 차

결과보고

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변동	5
----------------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	13
-----------------------	----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토 론 1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3
------------------------------	----

토 론 2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29
--------------------------------	----

속기록

「2022 통일문화 학계 연계 세미나」 결과보고

1. 세미나 개요

- 세미나 주제: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문화변동
- 공동주최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일 시 : 2022년 05월 11일(수) 15:30-17:20
- 장 소 : 서울대 시흥캠퍼스 통일평화연구원 9층 회의실
- 주 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운영방식 : 대면/비대면회의 병행
 - zoom 이용 비대면으로 진행함(유튜브 송출 병행)
 - ZOOM 참여 : <https://snu-ac-kr.zoom.us/j/99569337375>
 - Youtube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channel/UCxk1q5c01M5m-zQxMJJDVsQ>
- 참석 : 44명
 - 대면 참석자 : 19명
 - 비대면 참석자 : 25명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및 온라인 청중)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직책	
대면 (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9)	김대관 조현성 노영순 김 면 최경은 이상열 이성우 전미소 유채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문화연구본부 본부장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실장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실장 관광정책연구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사업전문원 성과확산팀 차석행정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9)	김병연 김범수 이정철 김병로 정병국 천해성 김학재 김지훈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 센터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속기사(1)	김형진	
비대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관계자 및 외부 청중(25)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참 여 자
15:00~15:30		MOU 체결식
15:30~15:40	인사말	사 회 : 김 범 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인사말 : 김 병 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 대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15:40~16:40	발 표	발 표 1 :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변동 김 병 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발 표 2 :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 이 성 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16:40~17:20	토 론	토 론 1 :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2 : 이 정 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사진자료



4. 소요예산 : 1,325,000원

비 목	내 역		산출내역	금 액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발표자사례비	300,000원 × 1명	300,000원
		사회자사례비	250,000원 × 1명	250,000원
		토론자사례비	250,000원 × 1명	250,000원
		속기사사례비	200,000원 × 2시간 × 1명	400,000원
여비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25,000원 × 5명	125,000원
합 계				1,325,000원

- 연구원: 사례비 및 보고서 인쇄
- 통일평화연구원: 온라인진행(플랭카드 포함), 간담회(다과 및 저녁 식사)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문화변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발표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

김 병 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

김 병 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 김부자 초상화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제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김정은 시대 들어 시각적으로 달라진 여러 변화 중 하나는 몇 곳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떼어 낸 일일 것이다. 2015년 7월 리모델링한 평양순안국제공항의 정면에 붙어 있던 김일성 초상화를 제거하였다. 또 2019년부터 당전원회의 단상 정면에 있던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제거하였고, 2021년 1월 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도 주석단 정면에 걸려 있던 김부자 초상화를 떼어냈다. 북한에서 화재시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수령들의 초상화이고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에도 초상화를 철저히 모셔야 하는 것은 철칙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에서 김부자의 초상화를 떼어 내는 결정은 최고지도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최고지도자라도 자칫 잘못하면 위협에 처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2021년 4월 27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10차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청년동맹 명칭에서 떼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로동당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북한의 국가이념이다. “조선로당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도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이처럼 국가이념으로 공론화되어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청년동맹 명칭에서 떼어 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한다면 김정은 시대 북한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김정은 시대 국가정책의 방향

○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혁신과 창조, 전진’이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표현된다. 김정은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 데로 확고히 전환하며 우리의 전진을 구속하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 장애물들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¹⁾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혁신국가, 창조국가, 발전국가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1) 로동신문, 2021.1.9.

로동신문은 이러한 지침을 받아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당대회 관철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싣고 주민들에게 구호관철을 독려하고 있다.²⁾ 여러 공장과 기업소,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에는 이 구호가 전달되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조선중앙TV의 뉴스와 현장 취재에서도 이 구호를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김정은 시대 국가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 담론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2022년 3월 1일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의 결론에서도 김정은은 다시 이 정책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저변에서부터 새롭고 대담하게 혁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탈군사화 - 선군에서 선민으로

김정은 정권 10년의 국가전략은 한마디로 김정일의 선군정치(military-first politics)로부터 탈피하여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선민정치(people-first politics)로의 전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규약에 명문화하며 인민을 앞세운 선민정치를 김정은 시대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다. 선민정치는 선경정치로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민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이 추진한 선군정치로부터 사회주의 정상국가인 당-국가체제로 전환하였다. 17년간의 선군정치로 과도하게 군사화되어 있는 북한시스템을 탈군사화(De-militarization)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시스템으로 혁신을 한다는 기획인 것이다.

2012년 4월 집권하자마자 태양절 100주년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며, 기업소법과 농장법 등 경제관련 법규들을 정비하고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개방정책도 가시화하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군부로부터 반격을 받고 장성택이 희생되며 ‘병진’으로 봉합을 하였다. 핵개발 고도화와 ICBM 개발로 강경파의 요구를 충족시킨 후 2018년 4월 20일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하노이 북미협상이 좌절됨으로써 국가전략노선 전환 선언이 무색해졌다.

2012년 4월 퍼스트레이디 리설주를 대동하여 공개적인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는 물론, 신설 모란봉악단 공연 무대에 디즈니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고 보란듯이 이를 TV로 내보낸 것도 북한이 여느 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정상국가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다. 당비서 호칭을 복원하고 당 직제를 비서국 체제로 전환하였다. 정치국 회의나 전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상적 운영을 추진했고 당대회도 5년 주기로 개최할 것은 다시 명문화하였다.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칭(2020.11)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영문명칭으로 chairman에서 president로 바꾸었다.

2) 로동신문, 2021.3.9.

○ **현대화를 통한 경제발전**

북한의 경제문제는 심각하다. 5개년계획을 반복하고 있으나 물질 자원의 한계, 사회주의 제도의 문제, 인적 역량의 문제 등으로 경제성장은 밝지 않다. 특히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홍수피해 등으로 경제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이 예상된다. 김정은도 “경제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며 8차 당대회에서 질책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수치로 제시된 것은 주택건설과 시멘트뿐이다. 평양에 매년 1만호씩 5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 시멘트를 800만톤 생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80년대 전망목표’와 비교하면 낮아도 너무 낮은 수치다.

과거의 낡은 시설과 제도를 과학화·현대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체제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기업소법과 농장법 등 시장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과거 공장·당위원회가 행사하던 권한을 비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대신 지배인과 기사장이 기업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로 바꾸었으며, 농업과 축산, 공업과 운송, 통신 등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과학화, 현대화를 추진했다. 비록 성과는 크지 않았으나 경제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가 함축하듯 과학기술은 김정은 시대 핵심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다.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서는 시장경제의 위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 생산이 증대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국가에서 취한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들에 의하여 많은 근로자들의 수입이 높아졌다”고 평가한 대목에서 시장개혁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소법, 농장법, 살림집법 시행으로 생산증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집권 10년 간 관리체제 개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

김정은 집권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화 중의 하나가 국제경쟁력 강화다.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 중의 하나는 지난 70년 동안 ‘주체’의 이름으로 추진한 여러 정책으로 극단적 폐쇄주의 내지 국수주의 경향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주체연호를 사용한다거나 지금은 폐지된 ‘평양시’ 제정 등 수구적 행태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유럽에서 조기유학을 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러한 현상들이 주체적이기보다는 극단적 폐쇄성과 편협성으로 인식될 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폐쇄주의를 타개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조치가 바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제거하고 당규약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 언급을 제외하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개별 이름을 삭제하는 등 기존 관행을 ‘혁신’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나 김부자 초상화 부착, 휘장 착용 등은 대내 정치적 결속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제적으로는 조롱거리로 전락한지 오래며 국가 간 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5년 12월 중국과 교환공연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북한식 세계화는 유럽 유학경험을 가진 김정은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9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 70주년에 즈음하여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라는 서한을 통해 세계일류급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했다.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북한학자들이 북한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데서도 국제화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태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향후 변화 중에는 해외여행자나 외교관계에서는 김부자 초상화 대신 북한국기를 착용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3. 사회구조의 변화 - 도전 요인

○ 시장화와 계급갈등

김정은 정권의 경제노선과 선민정책을 대중적으로 실현한 공간이 다름 아닌 시장이다. 20년 전 300개로 시작한 종합시장이 490여개로 늘어났고 시장은 주민생존과 떼어 수 없는 생활공간이 되었다. 상품만 아니라 금융, 노동, 주택 등 여러 부문에서 시장화가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식량과 소비재의 60% 이상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70% 이상의 주민이 시장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인구는 37.5%에서 28.0%로 줄어든 반면, 농업과 서비스 인구는 36.0%에서 41.9%로, 26.5%에서 31.3%로 각각 늘었다. 즉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120만명의 노동자가 제조업을 떠나 농업과 서비스업으로 각각 60만명씩 이동한 것이다.³⁾

시장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 요소가 되고 있다. 하나는 양극화의 심화다. 시장의 활성화와 장사활동의 증가로 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증대하였으나,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빈민층도 그에 못지 않게 늘어나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탈북자 조사를 보면 공식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60%나 되며,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보충해도 하위 20~30%는 공식·비공식 소득이 전무하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15~20% 형성되어,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계층 간 갈등의 심화다. 중산층에서 성장한 시장 상인이 120만명을 넘어서고 신흥자본가인 ‘돈주’도 10만명으로 증가하여 기존 상류층과 첨예한 이익갈등을 빚고 있다. 새로운 상인계급의 성장은 전사자·피살자 출신성분으로 구성된 기득권 상류층에게 심각한 우려와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료와 기득권 상류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사자·피살자 성분 가족에게 새로 건설하는 주택을 최우순 순위로 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 Korea,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p. 193-19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DPRK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December 2015), p. 46; Government of DPRK,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p. 33.

○ 문화접촉의 정치적 효과

문화접촉이 증대하여 사상의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문화접변의 배경에는 급속히 늘어난 휴대전화 사용이 큰 몫을 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과 합작으로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가 출범하여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0년 500만명으로 늘었다. 휴대전화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사업도구임은 물론 지리적 이동이 철저히 통제된 북한에서 주민유동성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류'의 확산이다. 북한주민 중 남한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를 자주 접하고 있는 비율이 40%에 이르고, 남한 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65~70%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 10년을 통합해 볼 때 정치의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접촉이었다. 시장경험과 세대 등 다른 어떤 변수보다 여러 면에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촉진하는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파장이 워낙 커서인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반사회주의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으로 청년들에 대한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 사회경직성과 인적 역량의 문제

사회결속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54.2%가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고 30~40%는 사상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균 지지도도 6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결코 낮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결속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혁신해 나갈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사회갈등을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중국과 캐나다에서 경제지식을 학습한 소수의 전문가들이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 개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관료들은 대부분 지식과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대학에서도 시장경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개혁에 필요한 경제와 경영, 재정 등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혁과 국제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인적 자원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는 매우 시급하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직성과 수동성, 현실도피다. 이러한 수동성은 국가와 정부가 지시하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유일지도체제와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오랜 관행과 정치적 경직성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기존체제의 기득권에 매달려 시장체제로의 적응을 미적댄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그러한 기관과 간부를 "쳐갈겨야 한다"고 매섭게 질타했으나 관행과 구조를 타파하기는 쉽지 않다. 김정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유지해온 시군 단위 지역발전 전략을 도단위로 확대하지 못하고 '시군발전법' 채택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북한의 현실은 정치적 경직성과 폐쇄체제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4. 대북정책의 방향 - '북한 국제화'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행을 들여다보면 김정 위원장이 의도하는 대로 관행을 혁신하고 현대화하며 국제화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어느 정도의 범위로 확대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경제라도 의도한 만큼 호전되어 준다면 확장력이 있을터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집권초기부터 준비한 관광정책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당장 해결해야 하는 여러 안보 현안까지 산적해 있다. 김정은은 정상국가를 향한 여러 조치들이 미국으로부터 관심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파로부터 받는 압박이 커지면 과거에 익숙한 체제와 관행으로 회귀하려는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다. 70여년간 쌓아온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가 보인다.

북한의 사회변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를 개방하는 것이다. 비핵화 회담이든, 경제혁신이든 무엇을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폐쇄된 사회의 상태를 현재대로 두고서는 희망을 보기 어렵다. 극단적 폐쇄국가의 특징은 버티는 저항력은 있지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구성력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방이고 외부세계와 북한의 접촉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북정책은 '국제화'(globalization)다.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규범과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고 자체 혁신을 담당할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공항공과 당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철거된 것은 국제화로 갈 수 있는 좋은 신호다. 국제화를 위해서는 선진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규범과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제와 문화, 외교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물론 예술, 체육, 종교, 학계 등 다각도의 문화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문화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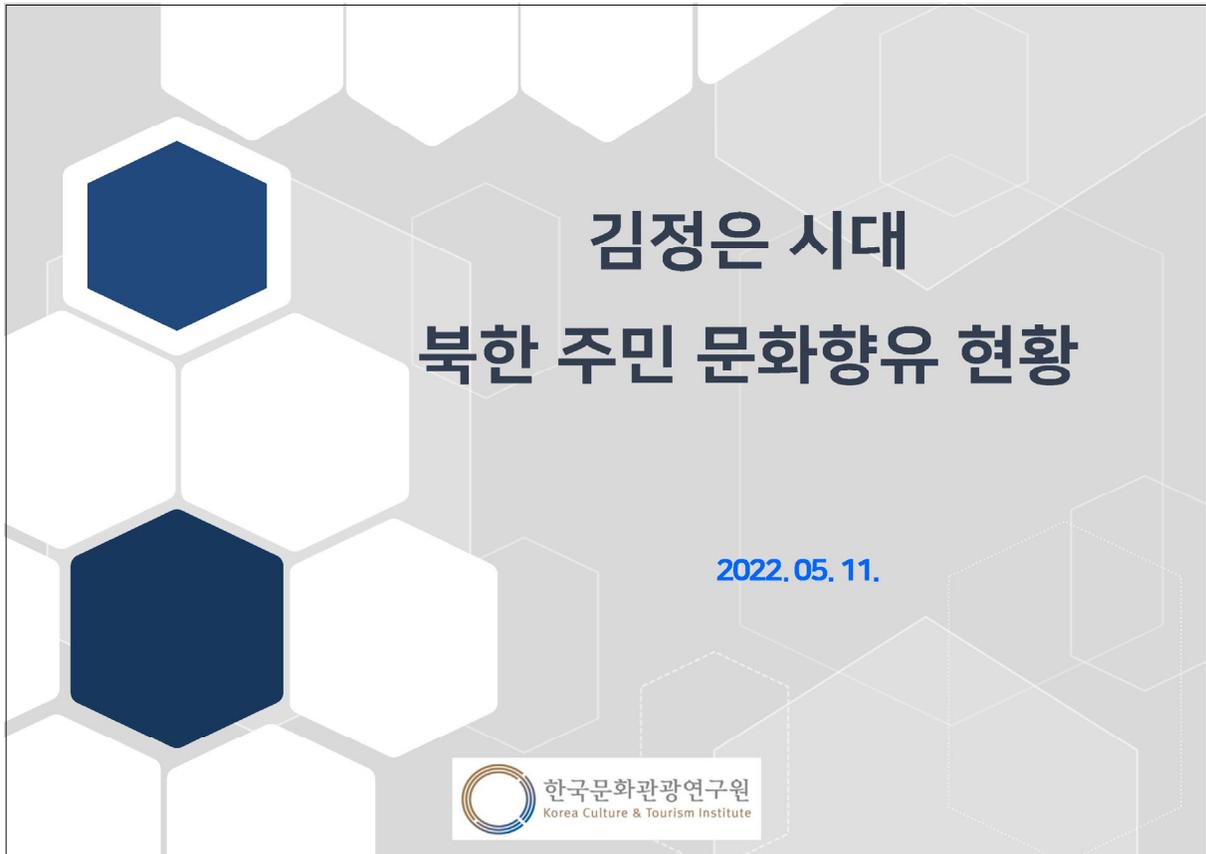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발표 2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문화향유 현황

이 성 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 목적 및 내용

2

북한 문화예술 향유 및 콘텐츠 소비 행태와 변화를 파악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연구에 기여

1 북한 문화예술 정책 기초

- 기존 북한 문화예술정책 기초
- 김정은 시대 문화예술정책 기초

2 북한 문화예술 및 콘텐츠 향유(소비) 행태

- 북한 유통 문화예술 콘텐츠 현황
- 합법, 불법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 현황

3 김정은 시대의 변화

- 문화소비를 통한 인식변화 요인
- 북한 사회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2. 북한의 문예(문학예술관)

3

- 핵심목표: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형 양성”,
- 문학예술은 “대중의 정치사상적 교화”와 “온 사회 혁명화” 하는 수단으로 인식
- 문학예술은 “당의 정책을 구현하여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

문화정책 담당구조

- 북한 문학·예술의 주체 : 당, 행정기관, 문학·예술인(혹은 그 단체) 공동창작
- 노동당- 감독자로서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활동 감독, 행정조직으로 문화성은 창작여건을 조성하는 역할
-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나 문화예술부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 선전선동부는 문학 및 예술 창작에 직접 관여함
- 창작가들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소속되어 작품 창작

2. 북한의 문예(문학예술관)

4

김정일-주체문예이론

-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인의 역할은 혁명투쟁을 강조하는 당과 수령의 가치관과 미의식을 인민대중에게 주입시키는 것임
- 종자론, 군중예술론, 선군혁명문학
- 2000년대 중반 ‘실리추구’와 ‘민족문화 강조’가 더해짐
- ‘실리추구’는 북한 개혁·개방에 문학예술이 기여

김정은-사회주의 문명국

- 첫째,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나라, 둘째,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 셋째,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차 넘치는 나라라고 주장
-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 : 내용은 과거의 경향을 유지하면서, 형식은 새로운 변화 모색
- 인민극장, 룡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룡라곰등어관, 류경원,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 해당화관 등의 위락시설, 문화시설, 편의봉사시설, 체육시설을 건설하였고 지방으로 확대

3. 북한 주민의 문화향유 5

장르 구분

<div style="background-color: #c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display: inline-block;">북한 생산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1호 형상 및 혁명관련 문학, 영화, 가극, 노래, 종합공연</p> <p style="background-color: yellow;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학습대상</p></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역사소설, 생활기반 문학, 영화, 드라마, 음악(경음악, 전자음악), 공연예술(교예, 교향악, 종합공연, 기념공연)</p> <p style="background-color: yellow;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향유대상</p></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display: inline-block;">합법 유입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중국 드라마, 영화, 공연물 (합법, 비합법 변동 by 북중관계 변동)</p> <p>80년대 소련영화, 동유럽 영화, 러시아 공연물, 인도영화, 세계 명작</p>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0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display: inline-block;">불법 유입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p> </div>
---	--	--

3. 북한 주민의 문화향유 6

선전선동도구로서의 문화예술은 학습대상

-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가요
- 1호 형상문학, 동원 목적 문학(시, 소설)
- 찬양가요

학습 방식

- 조선 중앙TV상시 방송
- 학교에서 암기, 시험
- 대학교, 직장에서 문답식 암기 테스트
- 출퇴근 시간 가두 확성기 통한 노래 송출
- 생활총화 시간 후 노래보급시간
- 문답 게임 : 동료 번호 지명 -> 해당 번호 사람 나와 표를 뽑음 -> 표에 질문과 노래 적혀 있음 -> 해당 노래 불러야 함
- 혁명가요 100곡집 수첩에 적어 암송
- 혁명가극 - 국어문학 시간에 강의

3. 북한 주민의 문화향유

7

합법 북한 문화콘텐츠 향유 대상

- 역사소설(삼국시대, 을지문덕 등 위인전)
- 생활기반 문학, 영화, 연극, 드라마
- 코미디
- 음악(경음악, 전자음악)
- 공연예술(교예, 교향악, 종합공연, 기념공연)
- 게임

향유 방식

- TV 인기 콘텐츠 : 재담(스탠딩 코미디, 만담)
- 저녁 7시 토일, 국제소식 30분, 국제체육소식 1시간, 과학기술소식 30분 프로그램
-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정보센터에서 콘텐츠 다운로드, 복제물 구입
-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는 인기가 있음(수령관련 드라마, 영화는 재미없음)
- 극장 공연 명절 계기 가족 단위 관람, 간부중심의 동원, 자발적 공연 참여는 20~30%

3. 북한 주민의 문화향유

8

합법 유입 문화콘텐츠 향유 대상

- 중국영화, 중국 드라마
- 소련영화, 러시아 공연물, 러시아 영화
- 인도영화, 동유럽 영화
- 세계명작 소설
- 외국 게임 복제물

향유 방식

- 만수대 TV 토요일 중국영화(중국 혁명관련), 일요일 소련영화(80년대 영화)
-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콘텐츠 다운로드, 복제물 구입
- 평양 국제영화제 외국 출품작 복제물 구입
- 평양 봄의 축전 외국 참여 팀 공연 복제물 구입
- 장마당 사설 책방 이용(운영자 - 영예군인, 사회적 약자들)

4. 북한 주민의 한류 문화 소비

9

불법 유입 문화콘텐츠 향유 대상

- 중국영화, 중국 드라마 예) 중국 드라마 <산과 의사>(2014)
-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 등 한류 콘텐츠
- 한국식으로 변형된 북한 문화 콘텐츠

향유 방식

- CD, USB, sd카드(핸드폰)
 - 2000년대 컴팩트 디스크
 - 2010년 전후 USB
 - 2010년 이후 USB, 휴대폰(sd카드)
- 외장하드(컴퓨터) 공유
- 북한노래 한국창법으로 바꿔 불러 레코딩한 노래 판매 - 문화침투
- 노래방 활용 - 단속 대비 주인과 협상(뇌물, 일찍 퇴근 등)
- 택시 노래방 - 택시에 노래 기기 장착(장거리 손님 공짜)
- 지방에서는 인적 드문 곳에서 오락회
- 김정은 시대 들어와 노래방 감소

4. 북한 주민의 한류 문화 소비

10

콘텐츠 소비 연령

- 2010년 이전에는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 중심
- 2010년 이후 어린아이들까지 한류 소비
- (반동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나온 배경)

콘텐츠 소비 행태

- 수동적 한류소비층 - 7~8년 전 콘텐츠 이용
- 적극적 한류소비층 - 2~3년 전 콘텐츠 이용
-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 콘텐츠 소비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외국 콘텐츠 소비하며, 은밀한 방식이더라도 한류 콘텐츠에 개방적이고 친화적

4. 북한 주민의 한류 문화 소비

11

유통경로

- 외교행낭, 국경(밀)무역, 해외출장시 반입
- 판매, 친구(친척)간 공유, 선물
- 보안성 직원 집에서 많이 봄

단속에 대한 대응

- 한국 드라마 영화 보다가 들리면 최악은 몇 년 감옥(최장 5~7년)
- 걸리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함 - 뇌물
- 보안성 직원들 자신의 집에서 압수물 주변인과 함께 시청
- 중국 비합법 콘텐츠 - 압수에서 끝남

5. 김정은 시대의 변화

12

문화향유 개념 등장

- 김정은 시대 : 만들어진 문명국을 인민들이 누리게 하겠다
- 모란봉 악단 - '변화'와 '혁신'의 메신저
- 2014년 제9차 전국 예술인 대회 - 모란봉 악단 축하공연, 세계 명곡 레퍼토리, 애국가창법을 소울 풍으로
- 선전선동의 도구로서의 문화에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정책 추가
- 외래문화에 의한 문화침투에 대한 경계

기존 체계와의 혼동

- '모란봉 악단의 창조기품을 배우자'라는 구호는 기존 문예단체에게는 실행 불가능한 구호
- 중앙 예술단체와 도예술단 모두 기존의 공연 포맷이 정해져 있음
- 새로운 창작은 거의 불가능하고 수정이나 편곡 정도 수준에서 매년 공연을 준비함
- 기존 틀에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 이식은 불가능

5. 김정은 시대의 변화

13

하노이 회담 이후 과거로 회귀

- 2020년 정면돌파전 선언
- ‘자력갱생’, ‘간고분투’ 재등장
- ‘휘황찬 미래’, ‘만리마’ 들어가고 다시 ‘천리마’ 재등장
- 2021년 ‘고난의 행군’ 각오 언급
- 2021년 ‘영원한 승리자’ 새 기극 등장 - 월미도 해안포병 이야기, 사회주의 결사수호

새로운 작품 축소

- 중앙 공연들이 더 화려해졌지만 새로운 작품이 많이 줄어들음
- 영화, 연극, 음악 등 예술계 전반에서 부진
- 2016년 이후 예술영화 창작 한편도 되지 않음
- 최근 ‘하루낮 하루밤’ 영화 발표 - 결사옹위
- 대규모 공연 2018년 ‘빛나는 조국’, ‘인민의 나라’ 발표

5. 김정은 시대의 변화

14

문화예술인의 지위 하락

- 중앙 예술단 중 기쁨조에 해당하는 예술단 단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의 지위는 하락
- 일반 주민들도 탄따라로 인식
- 실제 배급수준이 낮거나 배급이 안된지 오래(도예술단은 2007,8년부터 배급안됨)
- 술기 관련 과외로 벌이 하거나 장사 시작
- 소속 예술단 및 예술단체 산하사업소 직원으로 근무

술기능력 하락과 예술인 모집 어려움

- 배급이 안되고, 사회적 지위 하락으로 인한 술기 능력 전수 기능 약화
- 예술인으로 성장한 이들도 예술단 취직 보다는 장사에 더 몰두함
- 전문예술인으로 뽑힐 외면 장마당 장사에서 더 큰 도움된다는 인식 확산

6. 연구과제

15

유입 문화 중심의 소비로 인한 변화

- 한류, 중국, 러시아 중심의 유입 문화 콘텐츠가 문화적 소비의 대세이며 주 관심사
- 김정은 시대 새로운 변화 추구는 질적 수준의 제고가 되지 않아 주민의 관심을 못받음
- 당 정책 기조의 혼란으로 문화예술분야 창작에서의 혼선
- 독립적 외화벌이 추구하고 부패로 인한 유입문화 통제 실패
- 유입문화에 따른 문화적 체험의 내면화로 인한 북한 자체 콘텐츠에 대한 외면 지속
- 정책적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공과 통제 강화를 동시 추구하고 있으나 통제 불가능

청년세대의 문화적 소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

- 청년 세대들은 한류 등 외래 유입 문화 소비가 일상적
- 북한 자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음
- 동원 되지 않는 개인적 흥미에 따른 문화적 소비 추구
- 해외 문화 콘텐츠 소비로 인한 정치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한 관심 필요
- 소련 냉전시기 - 비틀즈 인기
- OBS의 시사다큐 프로그램 '비틀즈, 소련을 뒤흔들다'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문화변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토론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토론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병로 선생님 글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떼기, 청년동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름 지우기의 숨은 뜻을 질문하면서 시작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 변화를 몇 가지로 보여준다.

첫째, 김정은 시대 북한은 혁신, 창조, 전진 기치 아래 탈군사화(탈선군), 현대화를 통한 경제발전, 국제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현대화(경제발전)와 세계화(국가경쟁력 강화) 추구, 이것의 반쯤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움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한 김정일의 메시지(2009)부터 시작됐기에, 김정은 시대만의 독특성은 아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버지 세대보다 이를 훨씬 강조한다. 현대화-과학화-세계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조기 서구 유학생 김정은이 아는 것이다. 12년제 의무교육(2012), 교육과정 개정(국제 표준, 체제안정, 교육실험: 과학과목, 2013), 과학기술전당(2015)과 미래원은 김정은 식의 세계화-과학화를 보여준다. 이 같은 조치는 선군정치를 펼치던, 세계화를 선언한 정도의 김정일과는 분명히 다르다.

둘째, 2000년대 초반 대비 시장화 진전,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계급 간 갈등 심화를 이야기한다. 시장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지만, 이제는 주민의 60% 이상이 시장에서 식량과 소비재를, 70% 이상이 시장에서 소득을 얻는다 한다. 시장화 진전은 불가역이지만, 북한 권력층의 암묵적 동의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시장이 커졌어도 아직까지 시장이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양극화와 갈등 심화에서 중간 집단(계급)과 일부 상류층의 결합 여부인데, 이걸 북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 역시 김정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남한 문화의 접촉자가 늘어나고, 이 같은 한류를 북한은 무엇보다 경계하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00),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정은 이와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남한 문화 접촉은 김정일 시대부터 지속된 일로 매체가 소형화되어 널리 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은 역으로 남한 대중문화를 비롯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문화가 북한에서 유행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게 북한 체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을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제 북한 사람들도 드라마를 드라마로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무슨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남한 대중문화 접촉의 양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영향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¹⁾

넷째, 북한은 사회 결속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경제발전(현대화), 국가경쟁력 강화(세계화)를 실현하기에는 사회적 경직성과 혁신 인력이 부족이 문제라고 인식한다. 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려 했다고 본다. ‘사회주의 문명국’이 실은 인바운드 세계화, 외화 획득을 위한 김정은 시대의 중요한 세계화 정책이다. 그런데 이게 실패해 버렸다. 원인은 1차적으로는 국제 정세뿐 아니라 코로나 19 팬데믹이다. 인바운드 세계화는 말할 것도 없이 아웃바운드 세계화, 외화벌이기도 어렵게 돼 버렸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외화벌이로서 북한 땅의 활용(내부적으로는 인민 문화생활의 증진의 측면도 있음)은 김정일 시대와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한편, 냉각된 국제 정세와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글쓴이의 말처럼 인력이, 그리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체계 개편의 효과는 당장 나오지 않는다.

다섯째, 북한은 사회 부문에서 현대화 및 국제화하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발표자는 팬데믹, 미국의 대북 정책 등을 그 원인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이 국제 사회로 나오도록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과 공동 세미나이기에 정책적 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언은 맞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과 경제 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운영 노하우를 공유가 효과적이다. 문화교류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운영과 기술의 전수다. 예를 들어, 도서관 교류라면 도서 교류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체계(현대화, 과학화, 세계화)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남한 입장에서 보아도, 화폐보다 이 같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 교류의 지속에 효과적이다. 대표 사례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지정(2013)이다. 유네스코 실사단이 개성을 방문했을 때 남북이 공동발굴조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북한이 개방하는 것, 이것은 남한이 예전부터 지향했던 바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남북 교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북한의 현대화-세계화를 도모할 수 없었다. 교류 중단은 2000년대 초반의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발표자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떼기, 청년동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름 빼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기계적이지만 위의 다섯 가지를 이에 대입해 본다. ① 탈군사화·현대화·세계화에서 탈군사화는 김정일 시대와 결별을, 현대화 및 세계화는 김정일 시대 후반기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시장화가 이제는 불가역적이란 점에서는 김정일 시대와 다르지만, 새로운 정치사회 세력 집결의 어려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③ 남한 대중문화 접촉은 김정일 시대보다 늘었지만, 그것의 영향력은 알 수 없다(발표자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는 입장이다). ④ 북한이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화를 추구한 것은,

1)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다. 탈북민 대상 조사의 회귀분석에 따르면 남한 문화 접촉이 비판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병로, “제4장 북한실태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외식」,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북한의 체제외식을 비판적으로 형성하는 데 가장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현실에서 한류의 접촉과 경험은 정치와 경제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일관된 효과를 낳고 있다.” 158쪽

①에서 언급한 대로 김정일 시대 후반기와 연관된다. 물론 이것의 실패는 외부 요인(국제 제재, 팬데믹)과 내부 요인(경직성, 인력 및 노하우 부족)으로 나뉘는데 내부 요인은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외부 요인은 김정일 시대보다 북한 입장에서는 강화되었다(불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남북 교류가 북한의 국제화(세계화)를 유인해야 한다는 점은 김정일 시대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일이다.

다섯 가지 혹은 네 가지(다섯 번째 교류를 제외하면)를 살펴보면 발표자의 질문, ‘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떼어내고, 청년동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름을 제외했는가?’에 답하기 쉽지 않다. 발표자 역시 명확하게 답하지 않는다. 토론자의 질문은 이것이다.

다만 토론자로서 추측해 본다.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결별하려 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첫째, 초상화 떼기와 이름 지우기의 대상은 김일성은 아니라 김정일이 아닌가 싶다. 김정일 시대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요, 선군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북한실태인식”에서 보면 김정은 지지도는 50% 이상이다. 연령별로는 20대 71% > 30대 69% > 50대 57% > 40대 56% > 60세 이상 51%의 순이다. 20~30대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 지지가 상대적으로 공감을 보여준다.²⁾ 이 같은 젊은 세대에서는 김정일 지우기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걸 북한 인구의 연령별 분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초상화를 떼 낸 시기(2015년 이후), 청년동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름을 뺀 시기(2021년) 즈음, 북한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14세 이하가 20%, 65세 이상이 10%, 15세~64세가 70%다. 15세~64세 인구를 10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각각 14% 정도다.

〈표 1〉 북한의 연령별 인구 추계(2021년)

출생연도		연령	분포
2007년 이후		14세 이하	20%
1957~2007	2007년~1997년	15~24세	14%
	1997년~1987년	25~34세	14%
	1987년~1977년	35~44세	14%
	1977년~1967년	45~54세	14%
	1967년~1957년	55~64세	14%
1957년 이전		64세 이상	10%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2022년 5월 10일 검색) 자료 재가공

‘고난의 행군’ 시기, 유소년기를 겪은 세대 이후가 약 62%(44세 이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김일성은 교육으로 기억하는 수령일 수 있지만, 김정은은 수령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못했을 수 있다. 김정은은 62%에 기대어 초상화 떼기와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름 지우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 물론 이때 지우기의 대상은 김일성이 아니라 선군

2) 김병로, 위의 글, 122쪽.

시대의 김정일, 고난의 행군 시기의 김정일일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아니라 북조선을 세운 김일성을 닮고 싶었을 것이고, 주민들이 아버지의 시대를 기억하는 걸 싫어할 것이다. 김정일만 지우고 싶지만, 김일성-김정일은 짝을 이루기에 두 명의 초상화를 떼어내고 새로운 청년 단체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현대화·과학화·세계화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이루고 싶었을 것이다. 마치 김일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지만 김정일 지우기는 김정은이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정일은 할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주는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정치적(생명체)로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의 지속과 변화는 생물학적 가계도 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나는 그래서 발표자의 대답 역시 ‘변화를 꿈꾸지만 쉽지 않다’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한다. 다시 질문을 드린다.

이번에는 발표자의 제언, 북한의 세계화와 관련된 남북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정은 시대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제재와 팬데믹이다. 대북 제재가 이전 시기보다 훨씬 강화됐지만, 북한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봉쇄에서도 북한 주민의 자족적 삶 역시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의도적 제재와 비의도적 제재인 봉쇄 상황에서 북한이 견디어 냈다면, 이건 기존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 주민의 구체적 삶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기엔 제재와 봉쇄만으로 북한이 세계에 문을 여는 일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세계 속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려면,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자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의 과정이 평화롭든 아니면 북한 내부의 다른 상황 발생이든 말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문화변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토론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

이 정 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

이 정 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 문화 생활 현황

-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사회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주요부문으로 강조함
 - 사회주의 문화는 북한 주민들의 여가 영역과 함께 공공적 가치, 규범의 사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문학예술 정책은 문학과 예술 부문에 대한 행정, 검열 일반을 포괄함
 - 김정은 시대 체육, 문학예술 등 다양한 사회주의 문화 영역은 국가적 차원의 관심 제고와 함께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기도 함
- 북한은 평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시 경관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
 - 평양의 창전거리, 위성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5만세대 건설 등 새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추진
 - 평양의 주택 및 거리 건설 등 새로운 문화시설은 일종의 '선물(gift)' 정치의 도구로 활용
 - 동시에 돈주 등 새롭게 부를 축적한 사회층들의 소비 공간으로도 활용
- 한국, 중국 등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유입은 북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의 영상물 유입이 지속
 -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이질적인 문화 수용의 매개체 역할
 - 김정은 정권은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을 통해 비사회주의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여가 내 미디어 시청 등은 외부 영상물의 비중, 영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지도록 함

2. 김정은 시대 변화

-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은 '사회주의 문명국'론으로 대표
 -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1) 높은 문화 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나라, 2)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 3)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차 넘치는 나라임
 - 사회주의 문명국 담론과 그 구현으로서 사회주의 문화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등 주요 통치 이데올로기와 연결됨
- 김정은 집권 초기 한 때 모란봉악단 등을 통한 '음악정치'를 실행
 - 2012년 7월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 사례
 - * 헐리우드 영화 주제가 등 외국곡을 소화하며 기존 악단과는 차별화된 관심을 불러일으킴
 - 김정은 위원장은 음악정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국기'를 대대적으로 선전
 -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 악단 등은 국내 지방 순회공연 뿐 아니라 해외 순회공연을 실행

○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도 강조

- 2012년 평양에 ‘인민 야외빙상장’과 대규모 롤러스케이팅장 개장
 - * 남포, 원산 등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팅장 설치하며 롤러스케이팅, 인라인스케이팅이 유행
- 2013년 능라인민체육공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이 개장
- 평양체육관,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 리모델링에 이어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 백두산지구 체육촌도 리모델링
 - 2017년 보통강 인근 ‘평양시 체육촌’ 완공
- 특히 ‘스키’ 종목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주목
 - 2013년 12월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 2018년 1월 자강도 강계 스키장 개장
 - 2018년 청소년 전국 대회 종목에 스키 추가

○ 이상화를 위한 수령형상문학으로서 총서 “불멸의 역사, 불멸의 향도”에 이어 『불멸의 려정』 시리즈로 『부흥』 등을 출간

- 『부흥』은 김정은 집권 초기 업적으로 선전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주제로 국가부흥을 위한 ‘인재강국 건설’을 강조함
- 김정은 시대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국가 주도 가극, 예술영화 등 주요 장르에서 괄목할 만한 작품 생산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 접경지역을 통해 중국, 한국 등 미디어들이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소비됨

- TV, 라디오, 녹화기 등을 통한 중국, 한국 등 외부 콘텐츠의 소비가 지속되고 있어 문화생활, 여가활동 중 외부 미디어의 비중과 그 영향이 주목됨
 - 최근 청년·학생층을 대상으로 비사회주의 단속을 강화하며 외부 사상, 문화를 차단하는 정권의 조치와 외부 미디어 수용이 주민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 관찰이 필요
- 외국 영상물 시청 경험이 증가하는데 따라 중국 영화(드라마), 한국 영화(드라마)의 비중은 일정한데 반해 러시아영화(드라마), 미국영화(드라마)의 비중은 점차 증가해 외국 영상물의 내용이 다양해지는 추이를 보여줌.

3. 도시 건설과 문화시설

○ 평양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 활동 강화

- 2021년 7월 북한이 발표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과정에 대한 ‘자발적 국가리뷰’(VNR)에 따르면, 목표1 민생개선 부분에서 “인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거점을 신축했다”고 기술
- 김정은 정권에서 문화여가 시설이 많이 확충됨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늘어남
- 문화시설 이용 시설로는 극장/영화관이 많이 이용되며 경기장/체육시설, 공연장 등도 애용

○ 평양은 물론 주요 지방도시 관광, 문화시설 이용 등의 변화가 나타남

- 지방의 명소, 다양한 문화체육, 관광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늘어남
-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관광 여행은 써비차(롱구방 Long Van), 숙박 관련 다양한 경험을 동반함

- 여행 통행증의 신속한 발급의 편의를 위해 뇌물도 동시에 일상화
- 접경 도시의 경우 외국과의 합작·교류에 따른 외국 문화의 영향도 늘어나는 경향이 특징적
- 접경 도시의 경우 다양한 무역, 교류협력 과정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이 증가함

4. 비사·반사 단속 실태

-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비사회주의와 관련해 증언
 -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뇌물을 주고 현장 등에서 풀려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단련대 등에 일정한 기간 동안 다녀오는 것으로 보임.
- 대학생 및 청년의 일상생활 단속
 -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조직된 '규찰대'가 두발, 복장, 장신구 착용(여성)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 단속으로는 청년동맹 사무실 등으로 데려가 '벌'을 주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정도의 처벌이 대부분
 - 단속과 뇌물의 순환도 관찰
- 여성들에 대한 여맹의 단속
 - 기혼 여성 등에 대해서는 여맹에서 일상생활 양식 등에 관해 단속
- 이른바 '백공구(109) 상무조' 등 '그루빠(그룹)'이 구성돼 단속 시행
 -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109 상무조' 또는 '그루빠'에게 비사 단속을 당했다고 증언하는데, 109상무조 또는 그루빠는 보안원, 보위원, 당일꾼, 행정일꾼, 검찰소, 재판소 관계자 등 6명의 구성원으로 구성
 - * 집행위원회는 해당 지역 및 단위의 당 책임자, 행정기관(인민위원회) 책임자, 검찰 책임자, 보안 책임자, 보위 책임자 등으로 구성
 - 그루빠 또는 상무조에게 적발될 경우, 동일한 정도의 뇌물을 줘야 하는 것으로 보임.
 - 단속 조직의 수장은 당일꾼

5. 총 평

- 이른바 '비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단속·통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 외곽기구에서 이른바 '그루빠' 등을 조직해 비사회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최근 들어 비사회주의보다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한 '반사회주의'를 비사회주의와 함께 내세우고 있음
- 법적 근거를 토대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단속·통제하기 위해 「청년교양보장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새로 제정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문화변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속기록

2022 통일문화 학계 연계 세미나

2022 통일문화 학계 연계 세미나 속기록 (2022.5.11.)

○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귀한 걸음해주신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름을 그렇게 오래 전에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니다. 부원장님을 통해서 이름을 들어보고 '이름을 참 잘 지으셨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이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셉 나이 교수님과 여러 번 국제회의를 하면서 빈적이 있는데 조셉 나이 교수님이 연성파워, 소프트파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핵심이 문화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상품이 문화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제가 북한 경제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북한 경제를 먹여 살릴 먹거리 산업이 관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우리 동북아의 알프스 또 '남북한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함께 묶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평소 생각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래서 '우리 통일평화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매우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걸음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북한 공동 번영 그리고 북한의 개발 또 남북한의 상호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와 함께 MOU 협약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병연 원장님과 김범수 부원장님 그리고 특히 또 너무 많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아주신 정병국 장관님과 천해성 차관님 또 우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님들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설립된 지는 2002년에 서울의 20년 된 연구기관입니다. 장관님도 계시지만 그동안 법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약했었지만 2016년에 문화기본법 통과를 하면서 법정법인화가 됐습니다. 문화기본법 안에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 문화에 대한 것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나 행복이나 융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문화와의 관계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 이름 정말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통일의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문화와 관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화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통일도 함께 포함돼 있는 그런 속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같고 이

루고자 하는 목적이 같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사실 저희가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오늘 협약식을 하기 위한 밑거름, 밑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들이 단순히 행사로써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나아가서는 전 인류에게 문화와 관광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첫 걸음이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병연 원장님과 관계자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를 천해성 차관님께 부탁드리고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맡아주십시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천해성입니다. 오늘 우리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두 원장님 방금 인사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2부 행사로 마련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문화변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됐고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를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행사를 앞두고 며칠 전에, 제가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좀 그런 버릇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또 어떤 연구를 주로 해오셨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방금 김대관 원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설립목적에도 말씀하신 대로 문화기본법의 목적과 법정 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설립 목적이 나와 있고 거기에 주요 임무에 보니까 딱 11조 2에 5항, 6항에 북한문화예술연구가 주요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통일부에서 수십 년 근무했지만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은 북한과 관련된 업무가 명시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런 연구기관에 북한문화예술연구가 법정 업무로 명시돼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방금 두 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평원과 앞으로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면서 우리가 평화와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문화변동’으로 해서 두 분이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는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에는 4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뒤에 시간이 남으면 토론을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시간 정도 두 분의 발제가 예정된 거는 30분 정도씩 발제가 준비된 것 같은데 30분 이내로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토론을 활발히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로 교수님이 먼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님께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성우 박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반갑습니다. 김병로입니다. 제가 문광연하고는 그래도 몇 번에 걸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조현성 박사님을 몇 번 뵈 기억이 나서 얼굴이 낮익고요. 이성우 박사님은 우리 연구소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처럼 느껴지고 김면 박사는 20년 전에 통일연구원에서 같이 만나서 연구를 같이 프로젝트 했던 기억이 나서 아까 만나서 20주년 기념식 하자고 그랬는데요.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김면 박사 때문에 아마 문광연 프로젝트를 몇 번 참여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낯설지 않은 저희 가까운 부서라고,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중에 저는 북한의 사회변동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뭔가 즐겁고 재미있게 제가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지루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연구를 한 30년 하면서 최근 10년 동안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택건설, 대대적인 주택건설을 비롯해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제 머릿속에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몇 곳에서 이렇게 없애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을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그 명칭을 청년 동맹의 이름에서 떼는 것이 굉장히 좀 제게는 새롭기도 하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초상화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화재 시에도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초상화를 건져 와야 되고요. 그걸 잘못 모셔서 먼지가 묻는다거나 그러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에서 초상화를 진짜 잘 정성스럽게 가꾸고 모셔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상징물인데 2015년에 평양 순안공항 리모델링 하면서 김일성 초상화를 정면에서 떼다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기도 하고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부터 당 전원회의 시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정면에 있던 거를 떼고 전원회의를 하게 되고 클라이막스가 2021년 1월 로동당 8차 대회에서 정면의 단상에서 초상화를 제거한 것이죠. 물론 당 대회 들어가기 입구에 초상화가 있고 절하고 그런 세리모니는 다 합니 다만 그러나 북한에서 이렇게 성스럽게 모시는 초상화를 어쨌든 중요한 단상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될 일은 아니다. 잘못 결정하면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요. 또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사실 북한에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당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상, 이데올로기죠. 주체사상을 북한 내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공식화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걸 김일성, 김정일 주의 청년 동맹이라는 이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을 떼고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한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시대 국가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8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 이런 구호에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이걸 여러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혁신, 창조, 전진' 이렇게도 활용하고 이걸 풀어서 구호로 만들어서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하자.' 이렇게 공장 같은 데 보면 뒤에 슬로건으로 다 붙어 있고요. 그런 정도로 그동안의 10년 동안 김정은이 추구해왔던, 김정은도 처음부터 이런 슬로건을 고안해내지는 못했겠죠. 그런 다음 방향성은 뭔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10년 되는 이쯤에 결집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구호로. 그래서 '혁신, 창

조, 전진' 이런 방향성 속에서 지금 말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과 창조와 전진, 그걸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도 혁신국가, 창조국가, 발전국가 이렇게 그걸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그 세 가지 변화가 첫째는 탈군사화이죠. 선군정치에서 선민정치로 변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상국가인 당 국가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거를 선군에서 선민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 부분에서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구한 것이죠. 낡은 제도,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과학화 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경제가 가장 큰 문제죠, 북한에서. 이 부분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소법, 농장법 이런 시장개혁을 향한 제도들을, 법들을 바꾸고 그 안에서 공장당위원회라는 과거 같으면 기술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이 같이 결합돼서 최고의 지도력을 행사했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부분들은 비상설기구로 만들면서 지배인과 기사단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체제로 바꾼다거나 여러 형태의 변화들을 경제 부분에서 보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경제에 투입을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육 부분의 개혁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니까 그 취임사에도 보니까 맨 뒷부분에 보니까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김정은 거를 누가 먼저 이걸 모방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러니까 어떤 담론이, 시대가 비슷하니까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 이 부분이 강조된 걸 보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공개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과 일치되어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뭐 전체적인 우리 현재 사회 남이나 북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의 북한이 추구하는 영역이 국제화라고 봅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인데요. 김정은이 볼 때 '북한이 70년 동안 주체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시켜온 중에서 결국은 극단적인 폐쇄주의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지도자가 예를 들면 주체 연호 같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과거에 평양시라는 것을 자체 독자적으로 제정했다가 폐지 하긴 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보기에 극단적인 폐쇄성을 북한 안에서는 이걸 주체적이라고 보통 부르겠죠. 그런데 김정은의 눈으로 보기에 이게 '극단적인 폐쇄성이나 편협된 그런 측면으로 인식되지 않은가' 그래서 초상화를 제거하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제거하는 것을 김정은으로의 유일 체계 확립을 위해서 과거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지우는 것이다.' 색깔을 지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측면은 없지는 않겠지만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렵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인 주체사상으로 다시 환원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월 9일자 로동신문에도 보면 '주체사상을 세계관화, 인생관화하라.' 이렇게 나온 로동신문 사설도 있는데 북한에서 현재 대외적으로는 주체사상이라고 활용하고 대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정식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내적인 용어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걸 최고 지도부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조차도, 누구도 들먹이지 않는데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들먹여서 어떻게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겠는가. 특히 자본주의는 차치하고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이 있는 국가들과 교류하더라도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고사하고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통용될 수 없다고 본다면 세계적으로 그래도 주체사상은 아직까지 그나마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언어를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청년 동맹의 명칭을 변경한 것도 청년동맹이 만약에 유럽의 청년들과 교류를 하려고 할 때 김일성, 김정일 주의 청년동맹이라고 하면 우습지 않겠나. 사회주의 청년동맹 하면 똑같은 사회주의 청년들의 모임, 리그 이렇게 하면 교류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교류와 소통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교육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MOU를 맺고 영어로 논문을 쓰고 하면서 국제적 진출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학술회의장에 가보면 학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만난 45세 정도 된 경제학자도 자기가 유럽 어느 학술지에 영어로 논문 한 편 썼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자기 이름 석 자를 저한테 몇 번 얘기하면서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자랑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지금 계속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해외 나와서 무슨 협상을 하고 또 트럼프하고 행사할 때 여러 사람들이 여기 배지 달고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앞으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하지 않고 북한 국기를 달고 나오면서 국가주의, 국가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국가, 국가의 정상화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변화들을 ‘국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대외적 활동 부분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김정은 시대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이런 조치들과 또 지향성들이 북한 내부의 여러 변화들에 의해서 도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활용하고 있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특히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간의 갈등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설립하고 또 시장 제도를 도입 하면서 도입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아졌고 100만 명 또는 140만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120만 정도로 중간 정도를 본다면 120만 명의 상당한 숫자가 새로운 상인 계급으로 형성이 돼 있고 또 돈주라고 하는 신흥자본가도 그중에 한 10%인 10만 명, 12만 명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중산층에서부터 성장한 상인 계층과 기존의 상층부의 상류층들이 전사자, 피살자 가족으로 구성된 상류층들과 상당한 지금 갈등, 이입갈등 내지 이념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주택법에 보면, 산림지법에 보면 지금 주택을 건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계층 갈등에 상류층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 혜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상류층들에 대해서 주택법에 보면 우리로 하면 0순위죠. 0순위가 누구냐면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상류층들에게 이걸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만을 무마하는 이런 정책, 통합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 요인은 한류와 관련된 문화접촉인데요. 한류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 43%가 자주 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고 남한 물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60~70%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이런 문화 접촉이 정체의식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의 10년 과거의 조사를 통합해서 볼 때도 한류와 같은 문화 접촉이 정체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2020년 12월에 반

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을 했다든가 작년에 9월 달에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로 문화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시장과 정보화와 더불어서 제약 요인들, 이런 북한이 생각하는 전향적이고 또 정상적인 국가로의 전환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장애 요인은 인적자원의 취약성 문제인데요. 북한이 열심히 사회적인 통합이라든가 결속력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서 결속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관료들이나 또는 학자들 또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의 인적자원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이제 시장경제나 경제발전 또 경제, 경영, 재정 이런 부분에서 인적자원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적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가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가 경직되고 수동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이런 관행들, 사회적인 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 역량들을 강화해나갈 것인가'라는 게 큰 문제죠.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도 '기관과 간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쳐 갈겨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질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관행을 타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현상들을 보면서 북한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 중의 하나는 시군 중심의 자력갱생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도 단위 내지는 전국 단위로, 이 지역 단위로 확장시켜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한 10년 동안 노력하다가 결국은 다시 시군발전법이라는 것으로 법제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중간에 한 2015년, 2016년 이쯤에 도 단위 발전, 도별 경쟁 이런 걸 계속 강조하면서 병행을 하다가 결국은 시군발전법 채택으로 2019년 이후에 전환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과거의 관행들을 타파하고 개혁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과 현대화 또 국제화 이런 움직임들 또 노력이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과거의 관행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시군 단위로 지역 자력갱생 체제를 하다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 단위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논의를 아무리 김정은이 2012년 들어오자마자 사실 사회과학원에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이런 지역 단위를 한번 논의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논의가 돌고 돌고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역시 시군 단위로 발전을 시켜야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회귀된다면 결국은 기본 구조, 오랫동안 한 40~50년간 구축되어 있던 이 관행들을 아무리 김정은이 비전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해도 혁신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것을 돕기 위해서는 외부, 미국이라든가 이런 외부로부터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고무를 시킨다거나 또 국내에서 강경파들로부터 반격을 덜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텐데 아시다시피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대화가 중단되면서 굉장히 좌절감이 크고 그거로 인해서 또 내부적인 강경파들로부터 압박이 커지니까 아마 과거로 회귀하려는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계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라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런 극단적 폐쇄국가의 특징이 '버티는 저항력은 만땅이다. 버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구성하는, 창조하는 구성력, 그 구성력

의 힘은 없다.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외부에서 협력해서 도우면 또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초청하고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국제화,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과거에 북한 국제화2017이라는 책도 냈습니다만 그런 국제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면, 외부 세계로 끌어내고 또 협력해서 돕는다면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인적 역량을 통해서 생겨날 테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내부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병로 교수님 좋은 발제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연구의 초점이 아무래도 정치 군사적인 상황들 특히 최근 한 2~3년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또는 뭐 미사일의 고도화 등등으로 조금 초점이 모아졌었고 그 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분석, 판단,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 김병로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신 그런 사회변동, 사회문화적인 변동, 변화 특히 금년이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여러 의미의 정주년이지만 오늘 회의 주제이기도 한 김정은 시대가 집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두 차례 당 대회를 하고 정치적인 권력구조의 안정화는 도모했지만 제재를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발제를 해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회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강조해주신 과학기술이나 교육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거나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군사적인 쪽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파악이 물론 현실적으로 뭐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워낙 또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근래에는 우리와의 인적 교류나 접촉도 워낙 지금은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연구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한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물론 여러분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만, 오늘 발제를 통해서 어떻게 인식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 주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도 그렇게 발제를 들으면서 과거에 회담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기도 어떤 변화를 하고 싶은데 간부들이나 체제의 소극성 내지는 경직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직접 목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그의 내심이나 의지가 반영됐는지 또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함부로 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이나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조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좀 분석하고 또 파악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우 박사님이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문화 향유 현황’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 이성우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은 제가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과제 정도는 북한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북한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유통 소비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제 수행 과정에서 1월부터 4월까지 탈북자 인터뷰와 함께 여러 북한 문화예술 분야 연구자들과의 포럼 이런 행사 등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오늘 발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래서 그 문화예술의 향유나 콘텐츠 소비 행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문화예술의 콘텐츠 등이 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인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내용은 기본적인 북한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정책기조를 검토하고 그리고 현재 북한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행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좀 검토해보거나 앞으로 연구를 해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첨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북한에서의 문예는 보통 저희는 문예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문학예술입니다. 그래서 문학예술관이라고 보통 표현되는데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세계 건설과 사회주의 인간형 양성 그래서 하나의 문학예술이라는 것은 혁명화, 사상 교양을 위한 어떤 목적 수단으로 보통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예술은 당의 정책을 구현하여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 있는 무기라고 정의를 할 정도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북한의 문학정책은 기본적으로 당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문학예술인들의 창작의 기본적인 심의과정을 통해서 창작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과 행정기관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공동창작, 집체창작을 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설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공연예술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전선동부가 관여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가들도 직업적으로 하는 창작가들은 모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소속이 돼서 작품 창작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문예이론라는 거는 김정은 시대에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모든 문화예술인의 역할은 혁명투쟁을 강조하는 당과 수령의 가치관과 미의식을 인민 대중에게 주입시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종자론이니 군중예술론이니 선군혁명문학론 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서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런 김정일 시대의 주체문예 이론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지향성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문학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더 추가된 것은 하나, 둘째 부분에 보시면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 현재 인민이 이렇게 문화 향유라는 개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책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김정일 시대의 내용을, 경향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부분에 대해서 북한 공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 관련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단편적으로 뉴스를 접할 때 살림집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마식령 스키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나 문화시설을 건설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그런 문화 향유의 개념 하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김정은 시대의 하나의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문화 향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냥 뭐 학술적인 개념을 떠나서 편하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 그리고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것 그리고 불법 유입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 그중에서 북한 생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1호 형상 문학이나 혁명 관련 문학들 그리고 그 문학 작품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화, 가극, 노래, 음악 종합공연 등이 어떻게 보면 내용적 부분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항상 어릴 때부터 강요되는, 학습하도록 강요되는 학습의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북한 자체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도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여가시간이나 퇴근하고 집에서 심심할 때 그래도 자기들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보통 소비하는 부분들이 역사 소설 그리고 생활기반의 문학들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경우도 경음악이나 전자음악같이 흥이 나는 음악들 그리고 공연예술 중의 일부 교예나 교향악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향유 대상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들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국가에서 강요하는 것은 학습대상이고 그중에 일부가 향유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과 불법 유입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드라마나 영화, 공연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북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잡아가거나 하지는 않고 그것들을 압수하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법 유입물 중에 그나마 인기 있는 것들이 80년대 소련 영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합니다. 흑백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80년대 소련 영화나 동유럽 영화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공연물 그리고 또 인도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명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불법 유입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류,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 등이 불법 유입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도 살펴보면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학습대상은 혁명 가극, 혁명 연극, 혁명 가요 등 그리고 1호 형상 문학 등이 포함이 되고요. 학습방식을 보면 일단 노출이 많이 됩니다. 조선중앙TV나 출퇴근 시간에 가도에서 확성기로 송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워낙 어릴 때부터 암기나 시험 등으로 해서 관련 내용, 혁명 가극의 내용 등에 대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기업소 등에서 생활 총화 시간 이후에 노래보급시간이 있고 그리고 문답게임 같은 형식으로도 많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가극 같은 경우에는 문학 시간에 강의를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혁명가극이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가서 공연을 보거나 조선TV에서 나오는 가극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향유 대상이 되는 역사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나 을지문덕 이런 위인전들이 좀 인기가 있고 생활 기반의 로맨스가 들어가는 문학 작품들 그리고 코미디, 경음악, 전자음악 그리고 공연예술, 게임 등이 주 대상인데 TV 콘텐츠로 많이 나온 것은 재담, 스탠딩 코미디나 그리고 만수대TV에서 주말에 보통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소식, 국제체육소식 그리고 과학기술소식 이런 것들이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방송이 되는데 이것들은 거의 기다리면서 보는, 그만큼 외부 것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외부 것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그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보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게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센터를 통해서 콘텐츠를 다운 받아서 보기도 하고 불법 복제물을 그 휴대폰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나마 도 예술단이나 여러 공인된 공연단체들에서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소비가 되는 것은 자발적 소비로 해서 명절 계기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걸 찾을 때 그런 것들이 주로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평양 주민들도 대부분은 보통 동원될 때 많이 본다요. 그리고 합법 유입물들은 중국 영화, 드라마 아까 말씀드린 해외 콘텐츠들이고요. 그래서 만수대TV에서 주말에 중국 영화 그리고 일요일에는 소련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봉사도 콘텐츠나 다운로드, 복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평양에서 국제영화제를 하는데요. 그리고 봄의 축전이라고 해서 외국 공연팀까지 참여하는 축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공연이 되고 문화제에서 상영이 되면 그게 바로 복제가 돼서 팔린다고 합니다. 복제물로 해서 팔리고 그것이 굉장히 외국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그리고 장마당의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 사설 책방을 통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유입물 한류 소비 행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불법 유입물 같은 경우 중국계 변동이 있지만 불법으로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중국 무협 영화나 이런 것들, 황비홍부터 해서 삼국지 그리고 여기 제가 언급한 산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한 중국의 메디컬 드라마인데요. 북한 사람들이 처음 본 메디컬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여자 주인공인 중국 배우가 북한을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중국 콘텐츠, 최근 소비 콘텐츠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유입이 돼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북한 내부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식으로 변형이 돼서 소비되는 행태도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유 방식으로는 일단 CD나 USB, SD카드로 해서 많이 보급이 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는 CD가 많이 활용이 됐고 2010년 전후는 USB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넣었다가 그걸 삭제를 하고 북한 세관을 통과해서 북한에 들어오면 상인들이 그걸 복제하는 기술이 보급이 돼서 다시 부활시키는, 회복시키는 기술이 있어서 다시 그 콘텐츠를 복귀를 시켜서 그것이 다시 팔리는 형태로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하고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SD카드를 통해서 보급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외장하드를 통해서 공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나 택시 노래방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락회 같은 형식으로 같이 모여서 외진 데 가서 한국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보편화 됐다고 인식할 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의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권력이 가깝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보안성 사람이 있어서 백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소비가 됐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광범위하게 소비가 되면서 사실상 어린이들까지 한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소비가 보편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반동사상배격법이나 청년교양보장법의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

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이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징어게임을 봤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한 7~8년 전의 콘텐츠들을 소비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소비층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한 2~3년 전 한국 한류드라마나 영화를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오징어게임을 들어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외국 콘텐츠 소비나 한류드라마 콘텐츠 소비가 굉장히 일단 보편적인 문화 콘텐츠 소비 행태로 들어가고 그만큼 단속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또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형태로 북한 사회 내에서, 문화가 한국드라마가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경로도 보시면 외교행낭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유입하기도 하고, 밀무역을 하기도 하고 그냥 무역회사 직원이 해외에 나갔다가 반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기도 하고 친구나 친척 간에 공유하고 선물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보안성 직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단속의 유효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상당히 약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반동사상배격법이나 이미 제정되기 이전부터 법적으로는 최장 5년에서 7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꼭 그 법이 아니어도. 그런데 단속된 현장에서 뇌물을 먹이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저희도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시비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파출소 가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성 직원한테 걸렸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뇌물 줘서 해결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압수만 되고, 콘텐츠 압수만 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단속이라는 것이 법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 기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정은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좀 문화 향유 개념이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류의 영향, 불법 유입물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향유 개념을 통해서 북한 자체 내에서의 문화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하지만 이게 아버지 시대 때보다 준비 정도가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나왔던 게 모란봉악단 정도인데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배우자’가 구호인데 기존의 김정일 시대에 짜여진 혁명가극이나 각종 음악공연단, 형식이 짜여진 형태의 문예단체들은 모란봉악단이 하는 것들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구호 속에서 기존의 문예단체들이나 또한 기존의 공연 포맷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 이게 혼란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새로운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문예 창작이 된다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상황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국민회담이 아니고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서 다시 정면돌파전 선언이 나오고 자력갱생이니, 간고분투니 이런 단어들도 다시 재등장하면서 다시 문예작품의 방향성도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면서 모란봉악단이 강조되지 않고 국무위원회 연주단 이런 것들이 주요 연주단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새로 그때 나오는 가곡들도 보면 영원한 승리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사회주의 결사수호 이런 형태로 다시 내용 콘텐츠가 기존의 것을 강화하는, 강조하는 형식으로 다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혼란이 많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작품이 많이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나마 좀 한두 개씩 강조하는 하나의 공연작품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나마 그래서 2018년에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같은 것들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위가 하락을 하고 있고 중앙예술단 소위 기쁨조에 해당하는 모란봉악단이나 국무위원회연주단 이런 정도 수준의 예술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문화예술인들의 지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예술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배급이 나오지 않은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문 예술인들은 과외로 돈벌이를 하거나 장사를 하고 아니면 소속 예술단의 산하 사업소 직원으로, 영업장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밥벌이 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지위의 하락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문화예술인의 술기 능력이 약화되면서 전문 예술인으로 교육받은 사람들도 사실상 전문예술단체로 들어가지 않고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그러니까 전문예술인이라는 게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소학교 때부터 외모를 보고 발탁이 돼서 계속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발탁될 정도의 외모면 사실상 전문예술단체 들어가서 공연하는 것보다 장마당 가서 장사하는 게 요즘 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커지다 보니까 예술단에서 계속 후속 예술인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까지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한류 불법 유입물이든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들어온 합법 유입물이든 유입된 문화콘텐츠가 문화적 소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세고 주민들의 가장 주 관심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의 그런 유입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추구했던 새로운 변화가 사실상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정책의 기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독립재산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외화벌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단속 상황에서도 부패나 뇌물로 인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유입문화에 대한 통제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입문화에 대한 문화적 체험의 내면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자체 콘텐츠에 대한 외면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세대별로 효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성세대, 40~50대 이상 그래도 국내 내부의 문화를 소비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청년 세대일수록 20대, 30대일수록 외래문화 소비가 가장 일상적이고 북한 자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비교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좀 고민을 찾아본게 소련이 냉전시기 때 비틀즈 인기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다큐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냉전시기, 구 사회주의권에서의 서구문화 유입이나 대응 이런 것과 함께 비교해서 우리가 검토해보면 이런 것이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북한 사회 문화 연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우 박사님,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문화 향유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현재 북한 사회에서 특히 일반 주민

들이 어떻게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지, 물론 단편적으로 이런 저런 우리한테도 알려져 있는 게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런 세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김정은 시대 들어서 나름의 변화를 추구했지만 여전히 질적 수준의 문제,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 사회적인 인식, 경직성 등등으로 인해서 내부 콘텐츠는 일반 주민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류를 포함한 그런 유입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소비가 상당히 일상적이게 됐고 자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정치사회적인, 오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북한 사회 그리고 뭐 문화의 변동, 인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팔로 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가 끝났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된 토론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신 조현성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이후에 이정철 교수님이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조현성 연구위원님. 토론해주시시오.

○ 조현성 (문화연구본부 본부장)

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입니다. 제가 2011년에 북한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북한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사회, 문화는 아니죠.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제가 세 분한테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영 교수님은 저의 지도교수이시고 김성경 선생님한테는 당시 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오늘 발표해주신 김병로 선생님이 예전에 민족통일연구원 시절에 쓰셨던 보고서를 보고 제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로서는 김병로 선생님께서 발표해주신 거를 토론하는 게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본격적으로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선생님께서는 ‘초상화 떼기 그다음에 청년동맹에서 김일성, 김정일 이름 지우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보고 북한 사회의 변화 혹은 지속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혁신, 창조, 전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선군 그다음에 현대화와 경제발전 그다음에 세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김정은 시대에 한정된 것이냐?’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김병로 선생님 글 어디에도 있습니다만 2009년에 아버지 김정일이 현실은 땅에 그다음에 눈은 세계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00년대 후반의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대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김정은 시대만의 독특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김정은은 아버지 세대보다 이걸 훨씬 더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제도 바꿨고 교육과정 개편했고 도서관도 과학기술전당으로 바꿔버리고 미래원도 설치하고 이거는 김정은식의 세계화, 과학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선군을 펼쳤던 아버지와는 다른, 세계화를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했던 김정일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00년대에 대비하여 지금 현재 시장화가 엄청나게 진전이 되었고 이에 따라 양극화와 개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건 예전보다 더더욱 물론 고난의 행

군 이후부터 시장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대 후반에 비해서는 더더욱 비가혁적, 불가혁적 시장이 들어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시기와 마찬가지로 저는 계급 간, 계층 갈등에서도 북한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권력이 암묵적 동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전 시대와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부 상류층을 전사자 이런 가족으로 보았는데 그런 부류의 계층 말고 ‘당에서 당 간부들이 어떻게 시장과 연계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김정은 시대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남한 문화의 접촉자가 늘었다고 하고 이 같은 한류를 북한이 경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성우 선생님도 그랬습니다만 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설명하시는데, 아까 이성우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매체가 작아지면서 남한 문화에 대한 접촉은 당연히 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 사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게 현실 리얼리티로 보는 것 같지는 않을 수 있다. 그냥 오락으로 볼 거다.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로 이해할 거다.’ 하기 때문에 남한 드라마 많이 본다고 해서 북한 사회가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남한 문화 접촉의 양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영향은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성우 선생님 발제에도 나오지만 북한도 볼 게 없는데 남한 거 봐라, 열심히 보고 그다음 날 나와서 열심히 일해라, 시장에서. 이런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가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김병로 선생님이 그걸 보고 회귀 분석을 해보면 문화 접촉이 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정반대의 해석들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북한 사회의 결속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경제발전, 현대화,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직성과 혁신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이거는 맞죠. 저는 김정은 시대에 북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정책이 사회주의문명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주의문명국을 저는 인바운드 세계화다, 이거는 관광 정책인데 외화를 한번 벌어보자. 국토를 이용하여 외화를 벌어보자는 거였는데 이게 실패했다. 왜? 제재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인바운드 세계화뿐만 아니라 제재가 많아지니까 아웃바운드 세계화, 문화예술을 아프리카에 팔든 뭐 이런 것들도 아웃바운드 외화 벌이도 안 되게 됐겠죠. 이게 아마 저는 김정은 정권에서 아쉬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점, 사회주의문명국. 외화벌이로서의 북한의 국토를 이용한다는 것. 물론 사회주의문명국을 내부적으로는 인민생활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외화벌이로서의 측면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거는 김정일 시대와 분명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제정세와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가능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자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다는 건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고 아무리 교육 체계를 개편해도 단 시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북한은 사회 부문에서 현대화, 국제화를 하려 했지만 그렇게 못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팬데믹, 미국의 대북 정책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경험과 사회문화 교류를 시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책연구원인 우리 연구원과 세미나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정책적 제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언은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사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거의 못했는데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 저희가 그냥 이런 연구하면서 북한 문화 교류에 한정해서 보자면 ‘북한이 원하는 게 그럼 예전처럼 돈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하우, 교육 이런 거라고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서 핵심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겠죠. 인력 운용과 기술의 전수 예를 들어 도서관 교류를 한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도서관을 교류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운영체계를 어떻게 현대화 할 거냐, 과학화할 거냐, 세계화할 거냐’ 이런 거를 북한이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화폐보다는 이 같은 노하우를 주는 게 교류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타당한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13년에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남한이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북한을 세계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김정은 시대에는 남북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북한은 현대화, 세계화를 도무지 도모할 수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김병로 선생님께서 처음에 질문한 거로 돌아가 보자면 ‘초상화를 떼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이름을 청년동맹에서 뺀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냥 기계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다면 탈군사화, 현대화, 세계화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현대화는 김정일 시대의 후반과 연관되어 있다. 다만 탈선군화는 김정일 시대와의 결별이다. 두 번째, 시장화가 이제는 불가혁적이라는 점에서 김정일 시대와 다르지만 뭐 김정일 시대에도 아마 비가혁적이었을 것 같은데 더욱 시장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정치사회 세력의 집결을 하는 데는 여전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권력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같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한 대중문화 접촉은 김정일 시대보다 늘었지만 그 영향력은 알 수 없다.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선생님께서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북한이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화를 추진한 거는 김정일 시대의 후반기와 연관됩니다. 물론 이것의 실패요인은 외부 요인, 제재와 팬데믹이겠죠. 그다음에 내부요인, 경직성, 인력, 노하우 부족 등이었겠죠. 내부 요인은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나 똑같다. 외부요인은 오히려 김정은 시대가 훨씬 더 불리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가 북한의 세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 그거는 김정일 시대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혹은 네 가지에서 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이 질문을 해주시고 몇 가지 사례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주시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의 숨은 뜻은 저는 ‘김정일 지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초상화 떼기와 이름 지우기의 대상은 김정일이다. 김정일 시대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였고 이걸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거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탈북자 북한실태인식에서 보면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20대, 30대가 70%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아마 해석에도 40대가 낮은 것은 이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의 세대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대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공고하다. 그렇고 또 김정일 이전 세대들한테는 김정일 지우기는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제가 해봤는데 북한 포털에서 보면 인구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 유소년기를 겪은 세대가 62%, 44세 이하가 62% 정도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이 62%를 믿고 김정일 지우기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은 그런 거고 이때 지우기의 대상은 김일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군시대의 김정일, 고난의 행군 시대의 김정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아마도 아버지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세운 할아버지를 닮고 싶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짝을 이루기 때문에 짝을 다 버려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걸 거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 혹은 초상화 떼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김정일 지우기가 김정은이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김병로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사실 아버 지우기가 할아버지와 자기를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김병로 선생님이 ‘변화를 꿈꾸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해주신 걸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북한 세계화는 우리 5, 6년 전에만 하더라도 북한 세계화를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북한이 세계화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요즘은 북한 세계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문체부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북한 제재가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봐라.’ 사실 잘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발적, ‘제재를 했어도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다. 그냥 자발적인 봉쇄를 했었을 때도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본다면 ‘북한이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촉발지점이 있어야 된다. 그 촉발지점에 문화교류가 혹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건데 이걸 과정과 결과는 우리는 사실 장담할 수 없지 않겠느냐.’ 과정도 어렵고 결과도 이게 평화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북한 사회에서 계층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 사회 내에서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현성 박사님께서 특히 김병로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질문과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김정은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 중에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초상화 떼기와 이름 지우기의 대상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게 아닌가.’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사극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행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북한 사회가 세습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이따가 우리 김병로 교수님께서 또 답변 내지는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 교수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한 33분 정도 됐는데 20분 이내로 그렇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 센터장)

감사합니다. 우선 마스크 쓰고 말을 하면 톤이 자꾸 올라가서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박사님 글은 워낙 스탠다드한 연구를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토론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해석을 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문화변동을 저는 한 두 가지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저는 동국대나 이런 데서 연구하는 게 혼종성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로 북한 체제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이브리드로 혼종성을, 북한을 본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사회변동론이나 체제변동론 할 때 특히 이제 정치학 쪽이 많이 변했던 오류가 이분법적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북한이 집단주의가 약화되면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있다. 또는 북한의 계획이 약화되면 북한의 시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이분법적 프레임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혼종성으로 보는 분들이 이게 동시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이죠. 그래서 ‘북한도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집단주의로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퇴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프레임이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 점에서 보면 북한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이분법을 좀 피해야 되겠다는 건데, 한 가지는 ‘북한의 집단주의가 변화되면서 시장과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 이게 국가와 대립된다거나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과연 그러냐.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소위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한류라는 것을 접하면서 우리 토론하신 선생님도 말씀 하셨지만 소위 ‘북한당국과 이격을 넓히면서 소위 통일의 호재로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평가들이 오히려 훨씬 많은 거죠. 마치 북한의 시장을 접하는 친구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이나 북한의 당원 출신들의 탈북자들이 오히려 남북 관계나 친한 의식이, 우리 남쪽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의식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나거든요. 탈북자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분법적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우리 기대를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의 시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소위 autocratic resilience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전제주의국가들 또 권위주의 체제가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정치학에서는 지금 제3의 민주화 물결 얘기를 빚대가지고 ‘제3의 권위주의 물결의 시대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탈냉전이 급속히 됐던 것 중의 한 요인은 체제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contagion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 만약에 제3의 권위주의 물결과 같은 시각으로 글로벌 체제를 본다면 북한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contagion의 측면에서 보면. 그 점이 우리가 ‘북한 체제를 우리의 이분법으로 봤던 것이 지금 자꾸 배반당하고 있는 한 원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문화를 볼 때 일단 상징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한 아이টেম은 저는 이제 북한의 대집단체조로 보이는데, 그게 아리랑에서 빛나는 조국 그리고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 이 3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리랑은 민족사 수난 극복, 내 피부의 극복 이런 소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2018년도에 빛나는 조국은 우리가 실제 평양 가서 많이 봤잖아요, 공연을? 거기서도 많이 느끼지만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애국주의 그러니까 아까 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애국 청년동맹으로 바꿨느냐.’ 저는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안 쓰는 것보다는 애국

을 쓴 거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북한이 이런 국가주의, 민족주의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이 공식석상에서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를 정말 좋은 노래다.’ 이렇게 찬양하는 스토리 그리고 빛나는 조국은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북한의 소위 미디어아트 기법. 그다음에 드론이 떴서 ‘조선아 만만세’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공연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김정은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저는 아리랑 시절하고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왔던 2019년에는 김정은이 6월 초에 공연 관람 가서 화를 내죠. ‘공연이 되게 잘못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연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소위 6월 19일 인가 시진핑이 평양을 가는데 시진핑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 준비를 김정은이 갔던 거고 거기서 인민의 나라가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를 했던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들이 이런 ‘대집단체조에서 보여준 상징적인 변화들이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90년대에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정치 경제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공부 안 하면 제대로 방법과 이론을 공부 안 했다고 하는 시절인데, 최근에 이렇게 돌아보면 훨씬 더 ‘정치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고 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인식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 ‘사람과 체제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좀 북한을 보면서 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어쨌든 이런 국가의 선동과 변화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의 놀이문화를 하위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거는 이성우 박사님의 발표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면서 자기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북한의 문화 변화의 포인트로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북한이 평양을, 도시 건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 건설이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서울 구경 가고 여가생활을 서울 가서 또 지금도 에버랜드 와서 보고 가고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문수물놀이장, 능라물놀이장 갔다 왔다. 얼마 주고 갔다. 가족이 갔다 왔다. 또는 지방의 팀들이 아예 이렇게 단체로 가서 과학의 전당 보고 왔다.’ 이런 변화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탈북자들 인터뷰해보면 ‘마전휴양소를 갔다 왔다. 송도원을 갔다 왔다. 심지어 강계스키장을 갔다.’, ‘호텔비는 얼마냐, 150달러다.’ 이런 다양한 소위 우리 상상하고는 굉장히 다른 여행이나 관광들을 즐기고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김정은은 어쨌든 주민들의 놀이 요구나 여가에 대한 요구를 체제 선동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양을 집중해서 놀이문화를 지으면 그것이 전체적인 사이클링을 만드는 이런 것과 결부시켜봐야 되고 한때 우리는 이제 ‘평양만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비판의 초점을 가졌는데 탈북자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은 원산이나 지방의 주요 거점도시들도 병행돼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좀 주목할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제 모란봉악단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평양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지방 순회공연들을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청년들. ‘그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것이냐’ 이런 거고요. 체육 같은 것도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르게 시장과 상업화와 연결되어서 확산되고 있는, 탈북자 인터뷰해보면 ‘탁구장을 자기가 빈 건물에, 공장 빈 건물을 임대해서 탁구다이 10대를 150달러, 하나에 150달러 주고 10대를 사서 설치했다. 그런데 100달러짜리 사면 공이

잘 안 튀고 150달러짜리 사면 공이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그거로는 돈 못 법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돈 번 거는 뭐냐, 그 ‘탁구장 10대 갖다 놓고 그 옆에 음료수, 먹는 거 이런 거 팔아서 했다.’ 우리 CGV에 팝콘 팔아서 수익 남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들이 생존하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소위 시장과 결합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쉽게 adaptation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엘리트나 젊은 세대들, 시장 세대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여가생활을 하는 거를, 탈북자 인터뷰해보면 한 25% 정도는 여가생활에 쓰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쉬기, 이게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여가생활의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영화나 TV 이런 거고요. 쇼핑도 한 10% 물론 복수응답 처리했을 때의 얘기입니다만. 쇼핑도 나오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TV나 미디어 같은 걸 보면 중국 프로그램이 거의 90%, 한국 프로그램은 한 50%, 러시아 거는 한 40%, 미국 게 한 25% 이런 정도의 분포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한류가 50%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높아지고 이런 해석들이 2010년대 전후해서 많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완충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격을 두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를 보는 비율은 물론 2010년 이전에는 한 40% 정도 CD를 보는 게 됐다면 지금은 거의 70% 이상이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확산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늘어났지만 그것이 ‘한류의 점령, 한류의 우세 이런 자극적인 해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지금 북한의 시장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남북 관계의 필요성은 굉장히 인정하지만 남북 관계의 친화도나 한국 정부나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동경보다는 중국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이 나오는 이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북한 체제가 김정은이 2020년, 21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락다운을 하고 사회 통제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저런 극단적인 통제 체제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얼마나 버티겠느냐’라는 시각들을 갖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런 것들과 비사통제, 반사통제 이런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북한 체제가 이 위기 상황을 오히려 국가의 통제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많은 물품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작동시키면서 국가의 집중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물론 전체주의 체제라는 거는 가장 견고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엘리트 체제의 균열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코로나 체제를 김정은은 권력 집중화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소위 109상무 이게 시작은 2003년도에 정보기술 인력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거의 109상무 팀들이 6개의 기관, 그루바로 묶어져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일종의 급행세의 역할과 통제의 역할을 병행하는 거는 버퍼 장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9상무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게 2010년 이전이라면 지금은 109상무 자체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이, 탈북자들이 뇌물 주고 그냥 단련대 잠시 다녀왔다, 이런 정도의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그런 소위 전체주의적 통제에 대한 변화에 적응을 어느 정도 버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사 단속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북한에서는 최근에 반사회주의 단속, 통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개는 반사회주의 통

제라는 말을 굳이 북한 애들이 쓰는 이유는 비사 통제가 광범위한 일탈을 다 포함한다면 그래서 약간 단련소 가는 정도의 위법이라면 반사통제는 이제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탈법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통제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을 반사통제라고 구분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탈북자들이 그 두 개를 구분을 잘 안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는 시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반사 통제라는 것을 해나가는 김정은 체제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이 박사님 발표를 보면서 북한 체제의 이런 놀이와 문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권력의 억압과 공포와 타협하고 적응하고 해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혼종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더 우리가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식의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배반하게 만드는 그런 평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철 교수님이 원래 북한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주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이성우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말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외래 사조, 특히 우리 한류를 포함한 이런 데 대한 인식,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대응이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의 관점에서 일부의 기대나 희망 하여튼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오류 내지는 잘못된 분석이나 판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지정토론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이 지정토론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야 하는데,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편하게, 자유롭게 두 분의 발제와 또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꼭 질문이 아니어도 좋고요. 하여튼 본인의 이런 판단이나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편안하게, 형식은 상관없습니다만. 김학재 교수님.

○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학재입니다. 좋은 발표와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아주 작은 질문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한 북한 이탈주민 의식 조사나 이쪽 또 통일의식조사에서 보면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의 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통일정책의 순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교류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여론은 문화교류를 제일 선호하시고 그다음이 경제협력이라든가 정기적인 회담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요. 북한 이탈주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 선호도는 인도적 지원과 그다음에 정기적인 회담 그다음에 경제이고 그 제일 아래가 문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선호하는 정책이 있고 다른 쪽이 좀 더 선호하는 정책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에 분석한 거에서도 이정철 박사님이랑 교수님이랑 김병로 교수님 다 얘기해주셨지만 문화 접촉과 관련해서 영향이 좀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토론은 좀 다르게 해주셨지만 어쨌

거나 확산이 되고 있고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남북 협력을 지지하는 여론으로 올 것이냐’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게 중국에 대한 선호로 더 가버릴 수도 있고 그게 체제에 위협이 된다 하면 그거를 정책적으로 열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원원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약간 기울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방식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게 실현이 되려면 여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지만 서로 맞춰가는 데는 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우 선생님 발표해주신 향유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한국에서도 언론재단에서 대국민미디어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몇 시간, 누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식으로 약간 양적인 정보를 좀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방송 시간을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해주셨지만 한국 문화를 몇 시간 정도, 한 달에 몇 회 뭐 이렇게 보고 어느 세대가 좀 더 어떤 걸 많이 본다든가 이런 양적인 정보를 좀 더 주실 수 있는지,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네. 이문영 교수님.

○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이라고 하고요. 두 분 발표와 토론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성우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화를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는 것의 위험성이나 이미 그런 것이 혼종되어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북한 문화를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참조로 언급이 되는 게 소련의 경험이기도요.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냉전 시대에는 소련 문화를 체제, 반체제, 공식, 비공식간의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 관계로 보던 구도는 이미 그거는 폐기가 됐고 그 두 극이랄까요 그게 극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생하고 상호 참조하고 또는 경쟁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를 보완하는 식으로 발전해왔다고 하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문화 현상 중에 이런 식의 두 개가 공생하거나 공존하는 초기 명확적 형태라 하더라도 아까 이정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버퍼랄까요? 그런 현상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문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하실 거, 질문이나 뭐 있으신가요? 김병연 원장님.

○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질문 아니고 제가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잠깐 어떤 쪽을 같이 협력하면 좋을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북한의 문화적인 트렌드 같은 걸 분석하고 그 함의를 유추해내서

나중에 남북 관계 문화적, 관광적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들은 북한의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북한 주민의 드라마에 나타난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탈북민 연구도 중요한 하나의 도구겠지만 또 하나는 북한에서 생산하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북한 이탈 주민 조사를 할 때 북한의 문화적인 변화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 협약에 걸맞는 협력 관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원장님, 향후 양 기관의 협력 방향과도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장관님.

○ **정병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저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국회에서 감시를 했던, 관리감독을 했던 그런 입장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좋은 연구 자료들이 있고 연구 결과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거 냉전시대의 동부권 나라들을 가서 보면 문화 인프라가 상당해요. 자유진영 국가보다, 웬만한 나라보다 월등하게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문화의 영향력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 이념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불리 문화를 이용을 해서 북한 체제를 바꾸겠다.’ 이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만큼 대응을 할 거고 준비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발달이 어떤 통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그 지도부들이 의도했던 대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위반을 하고 대북 교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부처에서 그만큼 전략적으로 이 문화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또 전략적 접근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봤던가’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주체지만 통일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게 그렇게 비중 있게 그거를 두고 있지 않고 또 통일부나 교류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보면 한류가 워낙에 세계적 각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외무부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기관장으로 나가게 되는 대사 발령을 받게 되면 저때부터 발령 받은 대사가 우선적으로 먼저 문화부 장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데 있어갖고 많이 요청하는 게 ‘문화원 만들어달라. 그리고 이걸 지원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이제 문화가 공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봤는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이제는 문화적 접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전략적

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등하게 지금까지는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문화를 더 잘 활용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국가가 통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제대로 하고 이걸 좀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금같이 제재 국면 속에서는 우리 의지로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문화적 측면들은 그 범주 밖에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조현성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도 대화가 단절된 속에서도 지속됐고 우리 국회에서 그 현장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오픈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인가 6.15 공동행사를 하러 평양에 갔다가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로 갔는데 '한나라당 대표를 주석단에도 앉히지 않는다' 그래서 파행이 된 적이 있어요, 행사가. 그 당시에 제가 파행되기 직전에 만찬에서 저희 테이블에 있었던 북한 인사에게 내가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그러면서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관장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북한에는 부여 시대의 유물이 있고 우리는 삼한 시대의 유물이 있는데, 그걸 좀 교류전을 하자.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유물들을 갖다 전시관에 있던 거를 전부 다 만들고 유물을 전부 다 다시 처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서 파행이 된 이후에도 수차례를 제3국에서 만나가면서 대화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아까 조현성 박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물자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런 정치, 외교, 안보 이런 차원의 군사적 측면에서 뚫을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아까 이성우 박사께서 쪽 북한에서 이용하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중국 거나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한류 열풍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엄청난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류의 팀을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했을 때 같이 공동 제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이 될 수 있게끔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감사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방금 우리 정병국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현재 물론 남북관계 상황으로 보면 지금 핵미사일 대응이라든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앞서 제가 모두에서도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의 우려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당장의 현안도 현안이지만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 남북관계 문화 교류 이런 걸 통한... 좀 거창합니다만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를 포함해서 조금 양 기관이 계속 협력해나가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병연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서 각각 지정토론에 대한, 코멘트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지금 자유토론하면서 말씀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로 교수님 먼저.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우리 조현성 박사님,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잘 지적해주시고 토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비판점이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물론 뭐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 이어져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도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한테 그걸 강조하고 간 거죠. 세계화, 국제화에 대한 강조를 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는데, 김정일은 뭐 굉장히 은둔형이라서 국제화, 세계화 비전은 있었겠지만 실행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 김정은은 이제 해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같은 것도 나서서 어떤 분은 ‘좀 너무 나댄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끔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 데 되게 적극적이다’ 하는 점에서 저는 김정일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일성과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유사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전혀 질적으로 다르지는 않겠지만 김정일 시대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고 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끔 하고 또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모습은 김정은 시대에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 점에서 좀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계급을 나누는 부분, 계층 갈등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 간부나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보다도 당 간부든, 군 간부든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 이전보다도 조금 더 드러나게끔 강조하는 것이 저는 당 간부나 군 간부나 모든 간부들도 선군 분석을 하는데, 인용을 할 때 그분들의 선군이 노동자인지 전사자인지 이런 구분들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전사자, 피살자라는 성분 그다음에 혁명학원 출신 그다음에 한일혁명가 가족이니 이런 선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유심히 보고 있고 그래서 당 간부에게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당 간부든 군 간부든 일반 국민이든 간에 전사자, 피살자라는 그 사람들, 그동안 사회적인 상류층으로 등용을 40년, 50년간 했던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거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죠. 과거 초기에 들어서자마자, 김정일 집권하자마자 해외에 노동자로 착출해서 보낼 때도 전사자, 피살자 성분 가족들을 보내라는 지시들을 하기도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류층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다.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김정일은 뭐 자기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신경을 쓰긴 썼지만, 아주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경우에는 선대들이나 상류층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다른 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문화 접촉 효과에 대해서도 저도 뭐 꼭 문화 접촉이 바로 정치의식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고 아까 몇 분들 북한 학자들도 사실 한류에 대한 비판 엄청 만나면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몇 번 들었고 한 3년 전엔가도 들었는데. 2018년에 평양에 남북 교류하면서 팀들이 문화예술단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교수 몇 분들이. 그게 무슨 예술이냐고 그러면서 거기 본 사람들이 다 인상 찌푸렸다고 그런 거 정말 앞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류에 대한 계층이나 집단이나 소속된 사람들의 성향들에 따라서 거부감도 많고 또 반발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한류의 영향들은 대체적으로 반반이다.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역으로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보고는 있

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정책 부분 인바운드, 세계화 그런 쪽에서 관광정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다른 논문에도 썼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와서 '제재를 회피하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은 것이 관광 정책이죠. 그것은 태영호 공사가 쓴 3층 설계실의 암호 책에 보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예측을 얼마큼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간부들이 모여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미국이 결코 북한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제재 속에서 북한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관광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오자마자 마식령부터 해서 엄청 관광, 원산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다 관광을 위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관광에 직격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역사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북한의 경제는 어느 정도 살아난다. 북한 경제 굉장히 작고 그리고 시진핑하고 회담 할 때도 벌써 그 당시만 해도 120만 명이 관광을 했는데, 북한으로. 그걸 시진핑이 500만 명까지 관광을 시키겠다고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이걸 지원하기로 했다면 북한 경제가 작은 상태에서 이거는 살아날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가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관광 부분은 북한이 아직도 코로나만 해제되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주력 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화의 운영과 기술 방법들, 노하우를 전수하는 부분. 저도 사실 아까 국제화 정책이라는 전략 속에서 제가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이트세어링 프로젝트 같은 북쪽 사람들이 여러 영역에서 제3국으로 와서 국제학술이나 아니면 그런 학술 공간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니까 '가르쳐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협력을 안 하니까 토론 회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군사, 경제 또 학술, 예술 이런 스포츠 분야 모든 분야가 가능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지난 한 20여 년 이상, 30여 년까지 오랫동안 그런 경험들이 국제적으로 쌓여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남북 간에도 남북의 직접적인 협력에 대해서 점차 북한이 거북스러워하고 또 북한이 이제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주의 국제 연대를 지향하고 국가주의, 국가제일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다 보니까 국제적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하고 또 협력해서 북한의 인적 자원들을 양성함으로써 북한이 장기적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저도 노하우를 전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리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한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데서는 북한 국제화 전략에서 여러 형태의 문화, 학술 그다음에 예술,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들을 좀 폐쇄된 체제를 개방 체제로 바꾸는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인적자원 역량의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저의 기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김정일을 지우기. 저는 이런 관점보다는 그것과 저는 전혀 결을 달리 하고 그걸 일부러 지우

거나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프레임의 전환이다. 북한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 내부를 보면 지나치게 폐쇄주의로, 극단적 폐쇄주의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70년의 오랜 관성 속에서 그러니까 주체를 학습하다 보니까 무조건 독자적이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찌 보면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제가 좀 과도하게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도 김정은이 보기에는 이걸 조금 더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어떻게든지 북한 내에서 좀 약화시키면서 주체사상이라는 보편담론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북한의 70년 동안 쌓아왔던 내부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못하면 본인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조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합리성을 동원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구체적인 영역에서 바뀌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라고도 불러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국제화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도 보는데 그런 면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나 또는 뭐 유일 체계, '김정은의 유일 체계를 강화한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그런 평가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좀 북한 내부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큰 높은 수준에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게 따라오지... 구조적인 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 이것을 지금 계속 김정은이 경험을 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저의 평가는 '결국은 구조적인 한계를 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좀 비관적인 생각을 약간 51% 정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의 고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약간 견인을 해준다면 그리고 북한에 대한 변화를 지지한다면 내부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서 변화를 추동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병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성우 박사님.

○ **이성우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일단 이정철 선생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급하셨던 정치경제접근법부터 공부를 해서 정치학을. 이 문화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헛갈리는데 학술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들이 정리가 될 필요성을 항상 느낍니다. 저희 정책보고서는 정책과제 생산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있는데 오늘 언급하셨던 혼종성이나 여러 가지 국가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 불법적 구도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놓고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류에 의한 문화, 외래 유입 문화에 의한 북한 사회

의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교류의 영향까지, 교류 문제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 내에서의 사회문화적인 인식, 소비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수준까지는 생각을 하고요. 이문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적 공존 현상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제 발표 자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북한 노래를 그냥 한국 드라마 리듬으로 다시 자기가 만들어서 불법 콘텐츠를 자기가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한류 소비를 주로 하는 젊은 계층도 여성들의 외모에서 그게 딱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한 수준에서의 외부 문화의 요인을 좀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는데 그게 좀 주요 특징적인 변화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의 어떤 문화 인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조선중앙TV 뉴스를 보고 이려고 있는데 자기는 이불 덮어쓰고 한류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20, 30대 젊은 층이 중장년층이 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과연 추동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북한 내부 국가나 노동당이 어떻게 수렴해낼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학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양적인 정보, 저희가 일단 구체적으로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주 인터뷰 목적이 '내북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창작하고 유통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적인, 딱딱 그 목적 자체가 부가적으로 한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만족하실 만한 정도의 정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보고서 정리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재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서울대 통평원이 공동학술회의를 통해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문화변동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발제 그리고 지정토론 또 자유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마침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당장은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정병국 장관님도 말씀을 주신 대로 앞으로 또 우리가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남북회담 또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접근 좀 긴 호흡으로 그래서 북한 사회의 변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이런 한류를 포함한 문화적인 접근 물론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거나 너무 이분법적인 기대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 사회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정책들을 또 정책에 대한 제언들을 한다면 또 지금 정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양 기관에 오늘 MOU도 체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긴밀한 또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